

2025년 7월 8일(화)

###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420장 너 성결키 위해

-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말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 기도 담당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4(월)
이철용 안수집사	구성수 안수집사	이형수 안수집사	권인영 안수집사	전종우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14장 ..... 다 함 께  
 기 도 ..... 이철용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 베드로후서 1:2~11 ..... 인 도 자  
 찬 송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새벽찬양대  
 설 교 ..... 『알고, 더하고, 열매 맺으라!』 ..... 이신기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420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베드로후서 1:2~11 >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  
 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  
 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7월 8일(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의 열매로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진심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가 중에 계신 담임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그리고 두나미스 선교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력과 파괴가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일의 날을 속히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